



**소동은 없었다** 영업 정지된 보해상호저축은행이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한 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지점에는 예금자들이 몰렸지만 줄을 서 번호표를 받는 등 큰 혼란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최헌배기자 choi@kwangju.co.kr

## 靑·국정원 등 40개기관 디도스 공격 또 당했다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 발령...경찰 수사 착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기업 웹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 D-DOS) 공격이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은 5일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수사에 착수, 근원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4일 안철수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내 4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지속되면서 일부 웹 사이트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패턴 분석 결과 3일 40개 사이트에 대

한 디도스 공격 이후 4일 오전 10시께 29개 사이트에 공격이 감행됐으며 오후 6시 30분에 40개 사이트, 5일 오전 10시 45분께 다시 29개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009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국내 17개 웹사이트를 겨냥한 7.7 디도스 대란 때와 유사하다. 현재 파악된 공격 대상은 40개로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회, 경찰청, 국제청, 관세청, 국방부, 주한미군,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버, 다음, 옥션, G마켓, 안철수연구소,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이다. 디도스 공격을 유발하는 악성코드는 ncm63.dll, SBUupdate.exe, ntds50.dll, watsvc.dll, soetsvc.dll, mopxsvc.dll, SBUupdate.exe 등이다. 이들 악성코드가 설치된 PC는 이른바 좀비 PC로 변해 일제히 특정 웹사이트를 공격한다. 악성코드가 유포된 경로는 국내 P2P사이트인 셰어박스와 슈퍼다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철수연구소는 좀비 PC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의 긴급 전용백신(www.ahnlab.com/kr/site/download/vacc/downFile.do?file\_name=v3removaltool.exe)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디도스(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뜻으로, 컴퓨터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로 서버를 다운시키는 해킹 방식의 하나다.

## 과학벨트 입법전쟁 시작됐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발의 법안 등 3개 개정안 상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에 관한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회의 입법 심의는 물론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정에서 총력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김영진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과학벨트법 개정안과 또 다른 2개의 과학벨트법 개정안(민주당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 등 3개 법안을 일괄 상정할 뒤,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은 당초 국회 교과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의 반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 등으로 이날

상정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놓고 국회에서는 충청권과 경북권, 호남권 의원들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야당 내에서도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은 공조를 통해 입법 논의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학벨트를 광주, 대전, 대구의 3각 벨트로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남권 국회의원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정부가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과학벨트법에 대한 수정안들로 김영진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학벨트 및 지구 입지 대상 R&D 특구 관할지역으로 하고 ▲기초과학 연구원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되, 지난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에 두도록 하는 등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를 사실상 확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 부 문의 대학원  
062) 605-1114  
062) 605-1115

## 농협 금융·경제 2지주회사 재편

국회 농림수산위 개정안 의결...국내 4위 193조 금융지주사 출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민주당 최인기 의원)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 분리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8년을 끌어오던 농협사업 구조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보험·농협손해보험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기준으로 농협의

총자산은 국민(275조원), 우리(247조원), 신한(238조원)에 이어 193조원으로 4위에 해당돼 앞으로 자산 200조원 규모의 거대 금융지주사가 탄생하게 돼 향후 금융권의 판도를 뒤흔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특히 경제지주회사가 조합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고 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중앙회와 회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을 장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밖에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를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병문화했고, 중앙회는 추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자본금 배분 문제의 경우 중앙회는 자체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추후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후, "농협법 개정안(상임위) 통과로 공동생산·공동유통·공동이익이라는 농협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농민이 주인인 농협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낮 뜨거운 휴피 ▶3면 치솟는 전세 현명한 대출로 ▶4면 입맛 돋우는 봄나물 ▶5면 Books ▶8·9면 전래동화 앱 게임 ▶12면 양용은 PGA 2위 ▶14면

열심히 일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광고심의필: 1091-0300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과도한 업무, 무한 경쟁압박,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간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특히 40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간장질환자의 60~70%가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 되어 있으나, 알코올이나 약물, 비만 등도 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장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국제약품이 함께합니다.

손상된 간세포와 간조직을 재생하는 - Carduus Marianus Extract가 함유된 **만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보조 치료제**

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  
**리버비타 연질 캡슐**

\*기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제약품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3-2, 개빛/마케팅 TEL: 031-781-908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